

### 빌립보서에 담긴 복음과 전도자의 삶 -복음으로 여는 빌립보서-

전도서 1:12-18, 빌립보서 3:7-9

정운돈 목사님

#### 서론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다. 본문의 내용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지만,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효행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어버이주일에 설교하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장애인들과 지냈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버린 아이들이었다.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어버이에 대해서 알려 줄 수 있을지를 두고 복상하나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아이들에게 두 가지 심정이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고 또 너무 미운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연락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복음으로 양육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말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너의 생애 아니냐. 부모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그러면 다 하신 거야. 그렇지 않냐?" 맞다고 공감하더라.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헤어지게 된 것에도 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제대로 모셔라." 한 여학생이 나름대로 예쁘고 똑똑했는데 공부를 안 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되어서 열심히 공부 하더니, 임상심리사가 되어서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 셋을 낳고 잘 살고 있다. 이 아이가 상고를 나왔는데, 늘 바닥에 있었던 아이가 전교 1, 2등으로 바뀌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했더니, 자기가 어머니 사는 곳을 가 봤다고 한다. 어렸을 때 헤어진 후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와 처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러면서 사정을 다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어머니가 고생하셨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했다. 그것이 응답된 것이다. 내가 중학생 30명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는 고등학교를 꼭 가야 하는,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는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 속 이야기를 했다. 자기 어머니가 살인을 했고, 자기는 교도소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어머니가 18년 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어머니가 출소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미용 공부를 해서, 돈을 모아서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나중에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압구정동에서 큰 미용실을 하면서, 기사를 만나서 서울의 5성급 호텔에서 결혼했다. 만나봤더니, 미용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자기처럼 성실한 아이를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 다 조금 하다가 그만둔다는 것이다. 본인은 바다 청소 3년, 머리 감겨주는 것 몇 년 하면서 결국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효행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하겠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 이 속에서 전도자의 삶과 모든 관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난다. 약간 충격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가 너무 좋아서 그분은 빌립보서를 통째로 외웠다는 것이다. 나는 읽 어봤을 때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데 말이다. 그래서 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동이 되었을까 싶어서 계속 찾아보고 배경을 보았다. 그렇게 보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된 과정,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게 된 과정을 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발견이 있기를 축원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한다.

#### 1.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빌립보서에 담긴 복음의 내용

(1) 루디아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루디아를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 2차 전도여행은 시작부터 같듯이 생겼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고 루디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 같다.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헤어지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루스드라에 이르러, 1차 전도여행 때 찾았던 디모데와 같이 팀이 되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중요한 사명자였고,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명자였다. 이렇게 팀 구성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에서,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도무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하는 식이다. 그렇게 해서 길이 막혔는데,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환상 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도착하게 된 도시가 빌립보였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었던 모양이다. 유대인이 열 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런 역사가 우리가 이번 달 말에 갈 제주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제주도에는 의외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 많다. 우상숭배가 심각하다. 거기에 우리가 가서 캠프를 하려고 한다. 그

현장에서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실라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디모데는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대인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이 된 결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벌어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귀를 열고 들었던 인물이 루디아였다. 이 사람이 지주장사였다. 루디아의 성격이 좋을까, 까칠했을까? 나는 까칠했을 것 같다. 자주색 옷감은 고급 옷감이다. 이 장사를 그 시대에 하려면 얼마나 성격이 거칠었겠는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랑 같이 생길 정도였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거듭해서 권유한 것이다. 루디아도 있고, 귀신들렸다가 치유된 여중도 있다. 체질이 쉽게 바뀌겠는가. 서로 갈등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런 루디아가 사망자였던 것이다.

(2) 점치는 여중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점치는 여중이 따라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쉬운 전도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여중에게 들었던 귀신에게 명령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새로운 전도 현장에 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 같다. 한 노인정에 들어갔더니, 모든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웠다. 돈을 딴 사람, 잃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애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다. 그런데 이번엔 갔더니 다들 외롭게 누워있고 TV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니까 일체히 쳐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들 모이세요' 하니까 다 모여서 집중해서 복음을 듣더라. 말하자면 루디아는 사망자였고, 여중은 갈급한 자였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들린 여중이 치유를 받게 되니까, 그 여중을 부리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있었다. 얼마나 악한자인지, 여중이 치유되었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돈 버는 것이 막히니까 화를 내는 것이다. 너무 독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독하게 살 수 없고 싸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3) 이렇게 해서 주인이 고발하니까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감옥에서 아픈 몸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다. 우리 같은데 어떨까.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으면 원망이 가득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그 뒤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이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린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시체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를 혹시 듣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먼저 전했을 것 같다. 그날 밤에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차꼬도 다 풀려졌다. 이 간수가, 죄인들이 다 탈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간수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9에 중요한 구절을 정리한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고 은혜다. 구원과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앙, 죄,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왕, 저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참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가 왕이 될 것이기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간수가 들은 것이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 2. 빌립보서 안의 전도자의 삶

큰 두 번째로, 빌립보서에 담겨 있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 소중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착해졌는가. 항상 행복한가. 교회 안 모든 사람과, 학교나 직장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가.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모든 물질이 다 없어진다

해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겠는가. 항상 기뻐하시겠는가. 누구에게나 친절한가. 항상 행복한가.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갈등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내용을 알기만 해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1)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빌립보서 1:6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자녀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나라와 민족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머지는 전부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오직 믿음이다.

(2)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복음이며 전도자의 삶이다. 빌립보서 1:10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인가? 원수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은 그와 화해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충만이 필요하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총명이 필요하다. 사랑과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다. 지혜는 미래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를 가장 잘 아시지 않나. 지혜롭지 못하면 실수해 놓고 나중에 후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져라. 욕하지 마라. 지혜롭지 못하면 화를 쉽게 내다가 왕따되고, 전도 문을 막는다. 지혜로워야 한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항상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전도의 문은 그냥 열리게 된다. 쉽지 않은 길, 절대 불가능한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역사가 있기를 축원한다.

(3) 빌립보서 1:27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게 될 것이다. 심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 했더니, 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고 한다. 변화되시기를 바란다.

(4)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도 수용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빌립보서 1:29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을 하면 현금해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헌신해야 할 것이 많다. 엄정 고난이다. 그러나 그 축복, 헌신이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쌓이게 될 것이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했다.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음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양했고,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18년 넘게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5)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마음은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는 겸손한 마음이다. 빌립보서 2:6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 겸손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이 몰려온다. 그래서 빌립보서 2:2를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내 주장, 내 이익, 내 뜻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교만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겸손하게 상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대역사가 일어난다. 혼자 될 줄 아는 것은 기술이다. 실력이다. 그러나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능력이다. 여러분은 실력도 있어야겠으나, 능력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 일에도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분이 너무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강팍했다. 그런데 이분이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한양대 학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강팍 환자를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셨다. “저희 의사들은 그저 자르고 꿰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병을 고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분에게 성령이 역사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의사의 겸손한 말 한 마디가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다. “제가 죽으면 강산이, 바다를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맡기냐. (웃음) 다행히도 그 어머니에게 아이들이 가서 잘 지내고 있다. 우리의 작은 겸손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4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어느 구역에 식사당면이 모자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돕는 것이다.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내 알 바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나는 차 운전만 하면 되지, 뭘 고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하는 식이 될 때가 많다. 그것은 전도자의 삶이 아니다. 내 일, 내 일 딱딱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시간에 말씀을 또 들어야 한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6) 전도자의 삶은, 진정한 할레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레파라.” 할레는 신체 일부를 자르는 것이다. 당시 할레파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할레를 받으라고 말씀한다. 학벌 자랑, 돈 자랑, 지위 자랑을 버리라는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나도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지만,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운동, 생명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서, 참된 할레파가 되시기를 바란다. 필요 없는 것을 다 잘라버려야 한다.

(7) 참된 그리스도인은 유익한 것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빌립보서 3:7-8 아닌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8)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이다. 다 끝났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3:14의 말씀대로, 쫓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3오늘을 하면서 여러분의 분야를 살리도록 쫓대를 향해 매진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탐에, 서밋에 오르는 것이다.

(9)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갈등, 힘든 일이 많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빌립보서 4:6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의 영광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10)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빌립보서 4:11-12을 보니까,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다. 빌립보서 4: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풍요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오늘 배웠지 않은가.

## 결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세 가지로 결론을 정리하겠다.

(1)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한다. 그것이 영적 서밋이다. 어려움 오면 합들어하고, 기분 나쁘면 빠지는 것이 어찌 영적 서밋이었겠는가.

(2)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이 사람은 결국 요셉처럼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고향에 있을 때 항상 이발을 부탁했던 이발사 분이 있었다. 이분의 제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 배워서 이발 기능의 전문인이 될 수 있었는가 했더니, 그분은 필 가르쳐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히 배웠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아산병원에서 이발소를 잘 경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감사할 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 기능의 서밋이 되겠는가. 이 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한다.

(3)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참된 성공자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다. 대통령이 되었다. 갑부가 되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다 배설물이다. 이 자리에서 복음 듣는 우리가 성공자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다. 그런데 세상을 부러워하고, 성공을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이 흑암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빌립보교회는 부족한 점이 많은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보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 되었다. 빌립보교회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서밋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한 우리를 부르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렇게 되어질 만큼 3오늘에 성공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